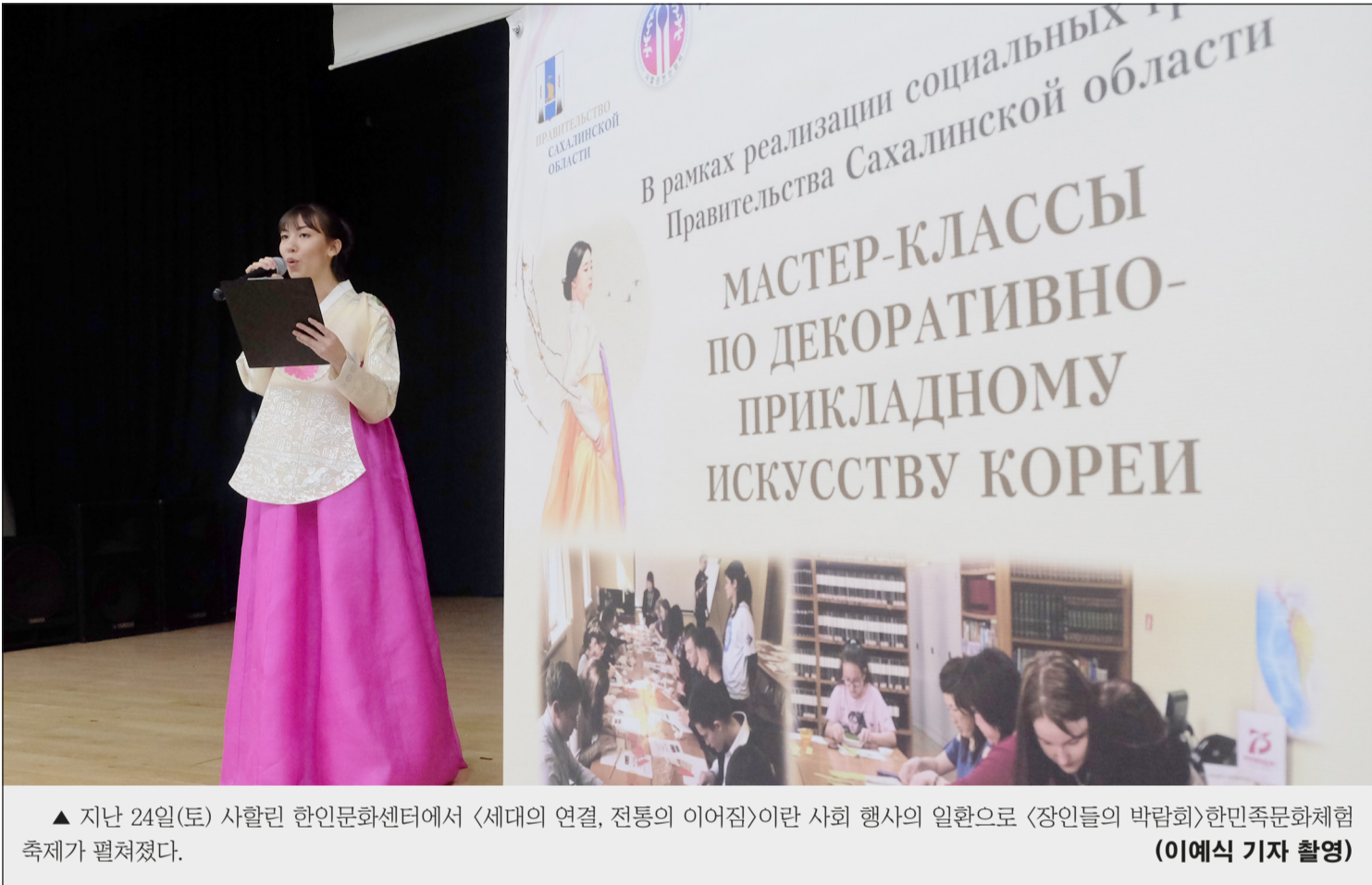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새고려신문</p>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20년 10월 30일(금) --(음력 9월 14일)-- Пятница 30 октября 2020г. № 42 (116909)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 지난 24일(토)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세대의 연결, 전통의 이어짐>이란 사회 행사의 일환으로 <장인들의 박람회>한민족문화체험 축제가 펼쳐졌다. (이예식 기자 촬영)

단신

사할린 및 쿠릴 학생들, 등교 재개

10월 26일, 1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모든 학생이 등교를 재개하였다. 9, 10, 11학년의 학교 수업은 이미 10월 19일부터 재개된 상태이다.

아나스타샤 키테와 사할린 지역 교육부 장관은 "사할린 지역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다시 수업을 시작했다. 현재 24개 학반(632명)은 원격수업을 받고 있는 상태다. 수업은 위생대책에 따라 진행된다."고 전했다.

교육기관들은 마스크 제도를 준수하고, 공기 청정기와 손세정제를 사용하며, 여러개의 출입문을 시간간격을 두고 사용하고, 수업 및 휴식 일정과 급식 규칙을 정리했다.

당국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및 호흡기질환 발생률 증가를 염려해 10월 12일 조기 방학을 시작하는 결정을 내렸었다.

사할린, 온라인으로 국제 관계를 발전

극동지역과 홋카이도 간 경제협력을 위한 상설 복합 위원회 회의가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렸다.

전염병 방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사할린 지역, 하바롭스크 및 연해주 대표들과 일본 홋카이도 현 사이의 대화의 장이 열렸다.

사할린주정부 부수상인 안톤 자이체브 러시아 지역 위원장 대행이 회의 참석자들을 환영했다.

그는 "러시아 극동 지역들과 홋카이도는 러시아와 일본간의 "문화 교류의 해"를 유치하는데 큰 기여를 했고, 전반적 러시아와 일본의 협력 발전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의 홋카이도 지부 위원장 대행인 나카노 유스케 부지사는 코로나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조치들을 통해 곧 이전처럼 교류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야쿠치야 공화국(사하)과 아무르주, 일본에서는 아오모리, 아키타, 니가타, 돗토리현이 참관자로 참여했다.

2019~2020년 지역간 협력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결과를 종합한 뒤 극동 발전 전망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드미트리 리스넵스키 사할린주투자정책부 장관은 사할린 지역의 5대 우선 투자 프로젝트인 수소 클러스터, 농업 정원, 화훼 재배용 온실 단지, '티몹스코예' 목재 가공 클러스터, '코르사코브' 산업 및 건설 단지 조성 등을 제안했다.

또한, 행사의 일환으로 관광, IT산업 등 다음 분야에서도 비즈니스 인터넷 미팅이 개최되었다. 재계의 대표들은 일본의 투자, 기술, 상품과 서비스 분야 소비자들이 원하는 우선 분야와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온라인 회의에 이어 각 당사자들은 최종 의견을 논의하고 승인했는데, 상호 합의에 의해 양 위원회의 위원장들이 비대면으로 서명하게 될 것이다.

상설 복합 위원회는 1990년에 체결된 홋카이도(일본)와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소련)의 우호 파트너십 협정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홋카이도와 러시아 극동의 3개 지역의 정재계의 주체로 대표되는 지역 차원의 러시아와 일본 협력이라는 독특한 형식을 나타낸다.

사할린 지역은 위원회 활동 참여에 힘입어 홋카이도와 함께 도시환경, 농업, 관광 등의 발전에 상호 협력하고 있다. 또한 교육, 의료, 문화, 스포츠, 청소년 정책 분야에서 지역간 교류도 발전하고 있다.

사할린 및 쿠릴, 2020년 8개월간의 자연 인구 감소량

1~8월 사할린 지역에서 자연 인구 감소량이 발표되었다. 신분등록소에는 출생아 3,589명과 사망자 4,036명이 신고됐다. 자연 감소는 447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에는 282명이 감소했다. 사망자 수보다 출생아 수가 많은 지역은 3개 자치체로 나타났는데, 유즈노사할린스크, 쿠릴스크, 유즈노쿠릴스크이다.

사할린 및 쿠릴에서는 2020년 1~8월 기간동안 결혼 2,046건, 이혼 1,393건이 등록됐다. 2019년 같은 기간 등록된 결혼은 2,213건, 이혼은 1,848건이다.

러시아 내무부 사할린이민관리국에 따르면 2020년 1~8월 사할린과 쿠릴에 12,455명이 입도했으며 이 중 55.1%가 영주권자였고, 12,792명이 떠났으며 이 중 81.5%가 전 거주지에서 등록이 취소됐다. 4,464명이 사할린 지역 내에서 거주지를 변경했다. 이주 손실은 337명이었다.

(사할린주 통계국)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근 러시아에는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연방 수석 위생사, 소비자권리보호감독청 안나 포포와 청장이 러시아 국민들에게 사람이 많고 좁은 장소, 대중교통, 택시, 엘리베이터 등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명령했다.

공식 법률정보인 인터넷 포털에 게재된 안나 포포와의 명령에는 "러시아 연방 내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 대중교통, 택시, 주차장, 엘리베이터에서 호흡기 보호를 위해 위생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을 알려 준다고 지난 화요일 타스 통신사가 보도하였다.


사할린주 정부는 연방 소비자권리보호감독청의 권고를 따라 밤11시에서 아침 6시까지 식당과 주점의 업무 금지를 명령했다. 소비자권리보호감독청에 따르면 이를 통해 사할린 주민들 사이에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산 위험을 줄일 것이다. 금지령은 10월 28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최소 11월 16일까지 유지될 것이다. 또한 이 시기동안 오락성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주지사가 승인한 새 법령에 따라 법인 및 개인 사업가들의 밤11시에서 아침 6시까지 오락성 행사, 출장 뷔페 서비스 등의 진행을 금지한다.

다른 새로운 금지 조항은 "집행 당국의 활동 이행과 관련된 공공행사"를 비공개 구내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한 금지령이다. 이는 11월 10일까지 효력을 발휘하며 공청회 및 토론회가 중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할린주는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10월 28일에는 93건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고 환자 84명이 퇴원했다. 총 7,624건의 사할린 지역에서 발생한 감염사례 중 10월 28까지 5,301명이 회복과 함께 퇴원했으며, 1명이 사망, 2,322명이 치료 중이라고 사할린 주정부 홍보실이 보도했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하루 16,000 여명이 감염되고, 총 감염자수가 150만 건을 넘어서는 등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본사기자)

<p>새고려신문</p>	<h3 style="text-align: center;">2021년 상반기 신문주문 계속</h3> <p>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1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인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p> <p>6개월 구독료는 551루블리 10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본사 편집부)</p>	
--------------	---	---

우리 현대인

최 마르가리타의 30년의 경력: 언론인, 홍보실장, 석유가스 회사 부사장

50대 초반의 최 마르가리타 르...

마르가리타는 어릴적 부터 활동...

1985년에 학교를 졸업하자 페레...

부모가 교육자였기 때문에 대학...

«재미없으면 제 성질에 바로 이...

웅변도 잘 하고 논평실력이 있...

마르가리타는 '날카로운' 질문을...

는 활약하기가 어렵겠다는 편...

«언론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전...

마르가리타는 '날카로운' 질문을...



부모와 함께, 최 마르가리타의 어릴적 사진.



안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3주가 지...

주지사 홍보실장으로 그는 5년간...

파르후트지노브 지사의 헬리콥...

외국회사에서 이런 인사발령은...

마르가리타는 «부사장이 처음...

올해로 최 마르가리타 부사장이...

부사장으로 최 마르가리타는...

스대학, 사할린주아동병원을 비롯...

그가 이렇게 성장할수 있었던 것...

그의 조부모(친, 외)는 1937년에...

최 마르가리타가 부모 얘기, 가...

언론인으로 10년, 주정부 홍보실...

(배순신 기자)

(사진: 최 마르가리타 제공)

이 모 저 모

사할린의 출판사, "2020 인쇄마당"에서 상장

10월 23일 사할린주 도서관에서...

이번 박람회에는 총 33개 참가팀...

수상자들은 사할린주 역사문서보...

섬지역 출판물들은 '지역사 최고의...

"이러한 상을 받은 것은 이 행사...

또한 시상식에서는 사할린주일반...

Сахалинским издателям вручили дипломы выставки "Печатный двор - 2020"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библиотеке...

которая проходил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сего на конкурс было заявлено...

Победителями стали Государствен...

Островные книги были отмечены...

Эти награды мы получили благода...

Также на церемонии директору Са...

유즈노사할린스크, 야간 달리기 800여명 참가

'야간 달리기'로 유즈노사할린스크...

야간 달리기 시작되자 800개 이상...

는 이번이 두 번째이다. 이 행사...

출발 전 준비운동은 '야간 달리기'...

"이 행사가 좋은 전통으로 자리...

Ночной забег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брал 800 участников

"Ночной забег" закрыл беговой...

Более 800 фонариков загорелись...

Разминку перед стартом провел...

Отрадно, что мероприятие превр...

(3면에 계속)

매듭 공예, 민속화 그리기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장인의 박람회> 진행

지난 24일(토)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세대의 연결, 전통의 이어짐>이란 사회 행사의 일환으로 <장인들의 박람회>한민족문화체험 축제가 펼쳐졌다. 사할린주한인협회와 사할린국립대학교(언어학, 역사 및 동양학 대학)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는 사할린주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이번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이미 3번째 열린 박람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참가자 수가 제한되었다. 작년, 제작년 대회때는 150-2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이번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중등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 사할린국립대학교 학생 등 50명 정도가 초대장을 받고 입장할 수 있었다.

참가자 수가 제한되자 안타깝게도 행사에 지방 학생들이 참석하지 못했다.

이번에 문화체험축제 참가자들은 공예품도 만들고 그림도 그려보았다. 매듭 공예 (펜던트와 팔찌 만들기), 전통 회화 (풍속화), 열쇠 고리 만들기, 종이를 이용한 자석 페인팅과 같은 다양한 수공예 마스터클래스가 진행되었다. 각 참가자는 여러 가지 공예활동을 체험할 수 있었다.

이 날 모든 참가자들은 자기가 직접 만든 공예품은 물론 기억에 남을 즐거운 추억까지 가져갈 수 있었다.

"박람회는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좋은 이웃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팬데믹 상황으로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가운데 이런 문화 행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사할린 국립대 동양학부 1학년생 나르스카야 안나가 박람회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행사의 한 참가자로서 필자도 역시 매력적인 창작에 빠져 흐뭇한 시간을 보냈다.

주최측에 따르면 앞으로 여러 가지 흥미롭고 교육적인 행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주최측과 참가자들은 세계의 역학적 상황이 나아져 다음 장인 박람회에서는 모두가 엄격한 방역 조치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표명했다.

(취재: 글/보로비요바 다리야, 사진/이예식)



김남중의 언제나 동화처럼 삶은 달걀

얼마 전 초등학교 아들이 퀴즈를 냈다. "Life is an egg."가 무슨 뜻인지 맞춰 보라는 것. 웃자고 낸 문제인데 웃음보다 먼저 떠오르는 풍경이 있었다.

기억이 아득한 걸 보니 내가 대역섯 살 쯤 되었나 보다. 열이 오르내리며 몹시 앓은 적이 있었다. 엄마는 나를 데리고 버스를 탔다. 비포장길을 먼저 날리며 달려 마당이 넓은 시골집 앞에서 내렸고 할아버지 한 분이 우리를 맞았다.



할아버지 방에는 이런저런 약이 있고 청진기며 주사기도 있었던 것 같다. 어떤 진단에 어떤 처방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쨌든 병원 같은 느낌에 바짝 긴장을 했다. 나름대로 치료가 끝나고 엄마와 할아버지가 내 병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방안을 둘러보았다. 활짝 열린 방문 옆에 달걀이 가득 담긴 바구니가 보였다. 삶은 달걀인 듯 작게 접은 소금봉지도 여러 개 보였다.

열에 시달리느라 허기가 졌을까? 갑자기 달걀이 먹고 싶었다. 진짜 병원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공짜 병원도 아니었다. 엄마가 얼마만큼 돈을 낸 다음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라기에 나는 인사는 놔두고 달걀을 즐겼다. 당황한 엄마가 빨리 집에 가자고 달랬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치료할 때 친절했던 할아버지는 모르는 아이라는 듯 냉정한 얼굴이었다. 계속 떼를 쓰자 엄마는 결국 달걀을 사주었다. 한 개는 먹고 두 개는 양손에 쥐었다.

돌아오는 길에 엄마는 털털거리는 시골 버스를 기다리지 않았다. 해지는 길을 돌이 손잡고 걷다가 내가 칭얼대면 업고 걸기도 했다. 걸기보다 엄마 등에 업혀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엄마 등은 따뜻하고 포근했다. 해가 저서 캄캄해진 탓에 잠도 솔솔 왔던 것 같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집에 도착한 뒤였다. 늦은 시간이었는지 여동생은 자고 있었고 두 누나만 깨어 있었다. 삶은 계란을 자랑하고 싶었는데 손이 비어 있었다. 밤길 어딘가에 흘린 것이다.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다. 울다가 잠이 들었고 그 뒤로 수십 년이 정신없이 흘렀다.

지금도 그 느낌이 한 컷 사진처럼 생생하다. 엄마가 그 길을 걸은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삶은 달걀'이라는 답을 듣고 내가 왜 조용히 웃었는지 아들은 모른다.

광주에서 김남중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러시아인, 10월 한달간 4월보다 6배의 마스크를 구입

마스크 대란이 있었던 지난 4월에 비해, 10월 마스크 판매량이 6배 증가했다. 사람들은 진열대에서 마스크를 한 움큼씩 사기 시작했지만 아직 항균제와 장갑은 그다지 인기가 없어 오히려 판매량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는 4월과 10월 상반기의 개인 위생용품 평균 판매량을 비교한 IT 회사 "OFD 플랫폼"을 참고하여 "타스" 통신사가 보도하였다.

10월에 러시아인들은 평균 104루블리를 마스크 구매에 소비했는데, 이 금액은 4월보다 74% 줄어든 것이나, 구매 빈도는 508% 증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마스크 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보인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마스크 사용이 제대로 시작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사람들은 지난 4월보다 10월에 장갑 구매에 20퍼센트 증가한 평균 119루블리를 소비하였으나, 구매 희망자는 19% 줄었다. 항균제의 경우에는 소비량이 더욱 크게 줄었다. 평균적으로 4월보다 39% 줄어든 243루블리를 소비하고 구매 건수도 한꺼번에 67%나 줄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공공장소에서 항균제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В октябре россияне покупают маски в 6 раз чаще, чем в апреле

Ажиотаж с покупкой масок, который не давал всем россиянам покоя в апреле вернулся с шестикратной силой в октябре. Люди горстями стали скупать маски с прилавков магазинов, но что странно, антисептики и перчатки такой завидн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не пользуются. Их напротив стали приобретать реже. Об рассказали в

информгентстве «ТАСС» со ссылкой на IT-компанию «Платформа OFD», специалисты которой сравнили средние показатели продаж средст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защиты за первую половину апреля и октября.

В среднем за одно посещение магазина в октябре россияне тратили на маски 104 рубля, что на 74 процента ниже, чем в апреле. А частота покупок выросла сразу на 508 процентов. Резкий подъем спроса на данный товар специалисты связывают с его прочным входом в обыденность россиян за последние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На перчатки люди тратили в октябре на 20 процентов больше, чем в апреле – 119 рублей. Однако число желающих их приобрести снизилось на 19 процентов. Еще серьезнее обстоит ситуация с востребованностью антисептиков. В среднем люди тратят 243 рубля, что на 39 процентов меньше, чем в апреле, а число покупок упало сразу на 67 процентов. На этом, по мнению экспертов, сказывается широкая доступность дезинфицирующих растворов в общественных местах.

사할린 주민들에 일본식 한자쓰기 교육

사할린 지역 도서관에서 일본 서예 무료 강의를 시작했다. 첫 수업은 10월 24일 사할린주도서관의 국제협력 정보센터에서 열렸다.

이 강의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주재 일본 총영사관과 공동으로 기획되었다.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손님들은 수석 사서인 올라 님츠카야의 환영을 받았다. 그는 국제협력 정보센터의 활동에 대해 알리고, 이 수업이 일본의 언어에 친숙해질 뿐만 아니라 그 문화를 배우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쿠노 카즈히로 일본 총영사는 환영사를 통해 도서관 직원들이 수업을 조직하는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강사들을 소개했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일본 외무성이 제작한 서예 관련 연수 영상을 보고 짧은 강의를 듣고 일본한자 쓰기를 체험했다. 선생님들과 함께 "행복", "평화", "봄", "꿈"이라는 단어를 썼다.

강의 참가자들은 강의에 만족하였다.

2020년 말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사할린 국립대학교에서 일본어 서예 강의를 열린다. 수업은 무료이며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 전화 문의는 +7 (4242) 45-25-47로 할 수 있다.

Сахалинцев учат писать японские иероглиф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библиотеке стартовали бесплатные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японской каллиграфии. Первое в этом году занятие состоялось 24 октября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м центр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ахОУНБ.

Мероприятие было организовано совместно с Генеральным консульством Япон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еред началом мастер-класса гостей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ла главный библиотекарь Ольга Пятницкая. Она рассказала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отметила, что подобные занятия помогают не тольк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языком Страны восходящего солнца, но и познать ее культуру.

Генеральный консул Япон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адзухиро Куно в своем приветственном слове поблагодарил сотрудников библиотеки за помощь в организации занятия,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л своих коллег – ведущих мастер-класса.

Участники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мотрели обучающий видеосюжет о каллиграфии, созданный Министерством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Японии, прослушали небольшую лекцию и попробовали свои силы в написании японских иероглифов. Вместе с преподавателями они написали слова "счастье", "мир", "весна", "мечта". Самые удачные варианты участники мастер-класса забрали себе на память.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каллиграфии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в СахОУНБ каждую вторую и четвертую субботы месяца до конца 2020 года. Занятия бесплатные, обязательна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запись.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у: +7 (4242) 45-25-47.

(사할린주 및 한국 언론기관 자료에서)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увениры своими руками

24 октября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г.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шла «Ярмарка мастеров»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Кореи,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которой стали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К сожалению, в этом году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было ограничено. Вход осуществлялся только по пригласительным билета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ярмарку посетили более 200 человек. Но даже карантинные меры не омрачили мероприятие и не стали помехой. В мастер-класс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46 человек, среди которых ученики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школ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х родители и студенты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такие направления искусства, как узелковое плетение мэдып (изготовление подвесок и браслетов), традиционная живопись пхунсохва, изготовление брелоков и роспись магнитов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традиционной бумаги. Наставниками мастер-класса стал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кафедры восточной филологии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 студенты старших курсов, которые уделили внимание каждому участнику и направили их творчество. В мастер-классе по живописи пхунсохва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консул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Квак Ки Донг. У каждого участника была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сразу в нескольких мастер-классах.

Абсолютно каждый унёс домой не только памятный сувенир, но и приятные воспоминания и незабываемые впечатления.

«Ярмарка оставила хорошие впечатления, я думаю, что необходимо проводить больше мероприятий для поддержания добрых сосед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ореей. Взаимный культурный обмен крайне важен и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несмотря на печальную обстановку в мире, привнес доброту и позитив...», – так отзывается о Ярмарке мастеров студентка 1 курса факультета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Нарынская Анна.

Ярмарка мастеров – один из соци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реализуемых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н направлен на сохранение национальных традиций народов. Корейская культура и Сахалин неразрывно связаны историческими и культурными нитями.

По словам организаторов, в дальнейшем планируется ряд других интересных и познавате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Также организаторы и участники искренне надеются на то, что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ая обстановка в мире улучшится и следующая ярмарка мастеров сможет пройти без всяких ограничений мер.



Дарья Воробьева
Фото: Ли Е Сик

Сменить все, кроме жены и детей

Жизнь и смерть председателя концерна Samsung Ли Гон Хи

В воскресенье 25 октября в Сеуле в возрасте 78 лет скончался председатель крупнейшего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конгломерата Samsung Ли Гон Хи. Именно он превратил Samsung в тот бренд, который мы знаем сейчас, ассоциирующийся с самыми передов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инновациями и качеством. Как это бывает со многими великими людьми, его жизнь не была безупречной, но никто не сможет отрицать и того факта, что он действительно был выдающимся бизнесменом, управленцем, умеющим, когда это необходимо, идти на болезненные, но нужные ради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перемены.

Последней каплей стала пыль на телевизорах. Если попытаться найти фразу, которая лучше всего характеризует подход и философию Ли Гон Хи, то безусловно ею станет уже широко растиражированное СМИ высказывание, сделанное им в 1993 году во Франкфурте, куда он созвал своих заместителей и главных помощников, когда уже был во главе конгломерата Samsung. "Смените все – кроме жены и детей" – сказал он им, потребовав начать глубочайшие реформы в концерне, которые коснулись не только оборудования, станков и технологий, но и самого подхода к работе.

Провозглашенная Ли стратегия "Нового менеджмента" стала эмоциональной реакцией на передачу по телевидению, где было показано, как сотрудники Samsung при помощи ножей подрезают края пластиковых деталей в стиральной машине, пытаясь подогнать части.

В том же году при посещении магазина по продаже бытовой техники в Лос-Анджелесе он увидел, что телевизоры Samsung, которые стоили в то время на 100 долларов дешевле японских конкурентов, уныло покрываются пылью, тогда как японскую технику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окупают, несмотря на ее более высокую цену.

Естественно, что все это стало скорее всего последней каплей, возможно лишь ускорив реализацию планов реформ компании. Встав во главе "империи Samsung" в 1987 году после смерти своего отца Ли Бён Чхолья, основавшего конгломерат, Ли Гон Хи сразу дал понять, что с ним многое будет иначе. С 1993 года была провозглашена ставка на качество и технологии в ущерб пусть даже количеству и доле рынка.

Уже через два года после фразы о смене "всего, кроме жены и детей" по личному указанию Ли Гон Хи были собраны и демонстративно сожжены тысячи мобильных телефонов, компьютеров и прочей техники Samsung, где были найдены дефекты.

Дар видеть будущее

Ли Гон Хи умел предугадывать будущее, зачастую его и формируя, не боясь идти наперекор доминирующему мнению. Еще в 1974 году он, продав часть личного имущества, приобрел долю, а затем полностью выкупил корейскую компанию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Korea Semiconductors, хотя его отец, который тогда был во главе конгломерата, считал это пустой тратой денег и говорил, что надо делать ставку на текстильную и мукомольную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Тогда никто не верил,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уровень технологий которой был не выше "отверточной сборки" комплектующих из Японии, сможет прорваться в "заоблачную" сферу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Но у Ли Гон Хи было иное мнение. "До каких пор мы будем оставаться страной, зависящей полностью от иностра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Мы должны сделать все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избавиться от положения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колонии!" – ответил Ли Гон Хи, считая, что именно полупроводники станут будущим локомотивом Samsung.

Девять лет спустя отец согласился с сыном и решил "немного поддержать", сделав это направление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приоритетов развития конгломерата. В конце концов компания Korea Semiconductors превратилась в Samsung Semiconductors, а затем вошла в Samsung Electronics. И уже в 1992 году Samsung Electronics по ряду важнейших направлений производства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стала абсолютным лидером в мире и до сих пор не уступает пьедестал никому.

Полупроводники же сейчас – одно из самых главных и наиболее прибыль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деятельности Samsung, а 1 ноября 1988 года, когда Samsung Semiconductors & Telecommunications вошла (повторно) в состав Samsung Electronics, празднуется как день основания Samsung Electronics, считающейся "главным бриллиантом" в "империи Samsung".

Наверное, Ли Бён Чхоль, если он видит все это с небес, уже давно признал, что его сын оказался дальновиднее, разглядев в находившейся тогда еще в зачаточном состоянии корейской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ой отрасли гигантский потенциал и огром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которые во многом и сделали Samsung тем конгломератом, который мы знаем сейчас.

Впрочем, дело полупроводниками не ограничилось. В 2003 году Ли Гон Хи заявил, что Samsung прекращает производство кинескопных телевизоров и будет производить только новейшие жидкокристаллические. При этом, именно "кинескопы" в то время давали Samsung более четверти всех продаж и доходов. Но Ли не побоялся лишиться этого "куска", считая, что аналоговые образцы ТВ остались уже в XX веке. Пылящиеся в углу американского магазина корейские телевизоры, которые не пользовались популярностью у покупателей, явно постоянно преследовали Ли.

В итоге в 2006 году Samsung Electronics обошел своего главного конкурента в битве за мировой рынок телевизоров – японский конгломерат Sony, а ТВ-устройство с брендом Samsung уже не покрывались пылью на прилавках.

Учиться у врага, чтобы поднять родину

Конечно, особенности характера, семья и прочие какие-то иные сугубо личные моменты всегда оказывают большое влияние на то, как люди проходят свой жизненный путь, подчас меняя облик страны и мира. Так было и с Ли Гон Хи, в воспитании которого огромную роль сыграл его отец.

Ли Гон Хи родился 9 января 1942 года на юго-востоке Кореи в городе Тэгу. Страна тогда была под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ей. Он был одним из восьми детей в семье основателя Samsung Ли Бён Чхолья, где родились пятеро дочерей и трое сыновей.

Стоит сразу подчеркнуть, что Samsung создал и вывел в крупные компании Кореи не Ли Гон Хи, а его отец Ли Бён Чхоль. Потому у Ли Гон Хи вы не найдете фотографий бедного и босоногого детства и жизни в соломенных лачугах с протекающими крышами. Наоборот, папа сумел обеспечить сыну и еще семерым детям зажиточную и даже богатую жизнь. В детстве Ли Гон Хи любил музыку, путешествия, играл на гитаре и обожал собаку, которая у них жила дома. Тогда собака в доме корейцев, именно в качестве домашнего питомца, было крайне редким явлением и признаком роскоши.

Свою учебу Ли Гон Хи начал в корейской школе, но затем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1950-х годов уехал продолжать учебу в Японию, последовав указанию отца "учить все самое лучшее и передовое у развитых стран". Это еще одно доказательство того, что Ли был не бедным. Учебу детей за рубежом, когда Корея лежала в руинах после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могли позволить только очень богатые корейцы.

Другой важный момент: следует учитывать, что если до сих пор у корейцев к японцам очень много претензий и обид, то уж в те годы, когда прошло менее десяти лет с момента окончания колониального порабощ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японцами, градус антияпонских настроений зашкаливал. Несмотря на все это, отец, вопреки общественному мнению, смог усмотреть большой потенциал в возможности научиться чему-то полезному для родины, в том числе и у врага, отправив сына в Японию. Ли Гон Хи же в полной мере взял у Японии то, что было нужно для развития Южной Кореи вообще и концерна Samsung в частности.

Закончив школу в Японии, Ли Гон Хи продолжил обучение на Факультете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 япон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Васеда. Развивать свои таланты в качестве бизнесмена он отправился за океан – в США, став магистром делового администрирования в американ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Джорджа Вашингтона.

Однако учеба и жизнь в странах, которые тогда жили куда лучше Кореи и были куда более развитыми, не изменила подхода ни отца, ни сына. Ли Гон Хи не остался жить ни в Японии, ни в США, а с багажом знаний, связей и нового опыта вернулся на родину, после этого окончившись в работу в структурах, связанных с Samsung.

В 1966 году он познакомился со студенткой Факультета искусства Сеуль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Хон На Хи, которая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стала его женой. Всего у них родилось четверо детей – сын и трое дочерей: Чжэ Ён, Пу Чжин, Со Хюн и Юн Хён. Ли Чжэ Ён сейчас является главным наследником Samsung, тогда как две старшие дочери также руководят некоторыми дочерними компаниями.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тавки на новейшие технологии Ли Гон Хи стал говорить еще с 1970 года, после посещения ряда производств в США и Японии. Это стремление он пронес через всю жизнь. С 1978 года стало очевидно, что из всех потенциальных наследников, именно он станет главным продолжателем дела отца, как и произошло в итоге в 1987 году. Ли Гон Хи был самым молодым сыном и седьмым по старшинству из всех детей, но именно он в итоге унаследовал большинство "империи" отца.

(Продолжение на 5-ой странице)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 Сеуле проходит Глобальная неделя медийной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грамотности

В понедельник в Сеуле открылась Глобальная неделя медийной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грамотности – одно из крупнейш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роводимых Организацией Объединённых Наций по вопросам образования, науки и культуры (ЮНЕСКО). РК проводит его в режиме онлайн в рамках празднования 70-летия своего членства в ЮНЕСКО. Выступая на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ЮНЕСКО Одри Азуле высказалась против чрезвычайно быстрог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ложной информации, в частности о пандемии COVID-19, которая, по её словам,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так же быстро, как и сам вирус. Она призвала мировое сообщество объединить усилия для выработки навыков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фальшивым новостям». Вице-премьер по социальным вопросам,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РК Ю Ын Хе заявила, что способность правиль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средства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больше не является вопросом выбора, а является основным навыком каждого. Глобальная неделя медийной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грамотности продлится до 30 октября.

Японский премьер призвал Сеул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труда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Японии Ёсихидэ Суга вновь призвал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труда корейцев во врем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которая считается проблемой номер один в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ях. Выступая 26 октября на внеочередном заседании парламента, Суга сказал, что РК является «очень важным соседом» Японии, и именно она должна представить решение проблемы. Ёсихидэ Суга затронул вопросы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впервые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 сентябре занял пост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Будучи генеральным секретарём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в предыдуще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индзо Абэ, Ёсихидэ Суга настаивал на том, что решение Верховного суда РК, предписывающее выплату компенсаций жертвам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труда из средств японской компании, противоречит договору о нормализации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заключённому в 1965 году.

РК инвестирует 6,2 млрд долларов в исследования в сфере услуг

В течение следующих пяти лет в исследования и разработки в сфере услуг будут инвестированы 7 трлн вон (6 млрд 200 млн долларов).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27 октября вице-премьер, министр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РК Хон Нам Ги.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средства будут частично направлены на продвижение бесконтактных услуг после пандемии COVID-19.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увеличит расходы на науч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 секторах туризм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контента и логистики, - отметил Хон Нам Ги. По его слов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асширит финансовые и налоговые льготы для этих компаний, чтобы они вышли на зарубежные рынки.

Фестиваль скидок и распродаж Korea Sale FESTA пройдёт с 1 по 15 ноября

С 1 по 15 ноября в РК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шестой по счёту ежег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скидок и распродаж Korea Sale FESTA с участием крупных розничных торговцев,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и традиционных рынков. Его цель – увеличить внутреннее потребление. По данным, которые обнародовали в пятницу оргкомитет и 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орговли и энергетики, в фестивале примут участие 1.328 компаний, и он станет крупнейшим в истории. Свою продукцию представят 17 регионов, что сделает фестиваль общенациональным. Количество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товаров, включая автомобили, одежду, электронику и косметику, участвующих в фестивале, увеличится более чем вдво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огодним мероприятием. Компании-участники предложат покупателям подарки.

С 26 октября действует программа бесплатных прививок жителям страны 62-69 лет

Как сообщили в Корейском управлении по контролю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заболеваний, с 26 октября начала действовать программа бесплатных прививок против гриппа жителям страны в возрасте от 62 до 69 лет. Бесплатная вакцинация пожилых людей старше 70 лет началась 19 октября. Орган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устанавливают разные даты начала вакцинации для разных возрастных категорий, чтобы снизить нагрузку на медицин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ланирует продолжать общенациона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бесплатной вакцинации до конца года, учитывая опасность эпидемии сезонного гриппа одновременно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вируса COVID-19. Как заявил накануне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РК Пак Нын Ху, программа бесплатной вакцинации от гриппа остановлена не будет. Он напомнил, что сезонный грипп уносит около трёх тысяч жизней в год только в РК, и польза от прививок превышает любые побочные эффекты.

(RKI)

Сменить все, кроме жены и детей

Жизнь и смерть председателя концерна Samsung Ли Гон Хи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4-ой странице)

Выход в мировую лигу

Ли Гон Хи так и оставался неистовым новатором до самого последнего момента, когда физически мог управлять делами компании. С его приходом в Samsung стали искать и создавать постоянно что-то новое, не удовлетворяясь достигнутым. Компания стала мировым лидером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смартфонов, компьютеров, ее дочерние компании работают во многих сферах – от пищев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индустрии развлечений до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Не будет преувеличением сказать, что именно Ли Гон Хи и конечно же трудолюбие и упорство корейской нации смогли практически «вытащить за шкуру» Samsung на уровень грандов мирового бизнеса.

"Приняв" Samsung от ушедшего из жизни в 1987 году отца, Ли Гон Хи сумел увеличить капитализацию конгломерата в 348 раз, увеличив параллельно в сотни раз и прибыль.

К концу 1980-х годов Samsung не был, как иногда пишут, "второстепенной компанией", это был крупный по корейским меркам холдинг, но оставался все же "одной из главных рыб в корейском пруде", но не в "мировом океане". А в 2014 году, когда в мае из-за сердечного приступа Ли Гон Хи был госпитализирован, Samsung уже превратился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 самую крупную компанию Южной Кореи, один из самых дорогих и популярных мировых брендов. Не случайно в Корею часто говорят "империя" или "республика" Samsung - значимость этого конгломерата трудно переоценить для экономики и общества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Согласно опросам, при слове "Южная Корея" у многих иностранцев сразу начинают всплывать в голове именно названия разных концернов, где Samsung неизменно занимает первое место. Samsung теперь еще и символ высочайших и перед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хотя когда Ли стал во главе концерна, все виделось иначе.

Смерть Ли Гон Хи в воскресенье 25 октября 2020 года не стала внезапной. Если быть объективным, то эпоха его правления закончилась шесть с половиной лет назад – ночью 10 мая 2014 года, когда он дома в собственном особняке в квартале Итхэвон в Сеуле перенес сильнейший сердечный приступ. Врачи тогда успели спасти ему жизнь, но полностью оправиться от удара он так и не смог. Говорят, что он мог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дышать, но речи уже о какой-то полноц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е шло. Эти годы Samsung руководил и руководит до сих пор вице-президент и единственный сын Ли Гон Хи Ли Чжэ Ён. Он тоже, наряду с другими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был рядом с кроватью отца, когда сердце того перестало биться.

Человек своей эпохи

Сейчас чаще всего вспоминают достижения и достоинства Ли Гон Хи, но конечно же есть и не самые светлые моменты в его биографии. Как сказал один из крупных бизнесменов Кореи, комментируя уход Ли из жизни, "его достижения велики и очевидны, но я не стал бы его называть образцом с моральной и этической точек зрения".

Ли Гон Хи был безусловно человеком своей эпохи, сумел поладить и быть нужным всем президентам Кореи. Он предвидел будущее в сфере экономики и технологий, но во многом играл по тем правилам, которые существовали в обществе и политике. Тот же самый титул главного наследника империи отца он забрал благодаря своей хватке и долгое время защищал от атак со стороны других претендентов - своих братьев и сестер, которые не скупилась на громкие обвинения и заявления.

Младшая дочь Ли Гон Хи Ли Юн Хён покончила с собой в 2005 году, находясь в США. Эту трагедию в семье Ли до сих пор не обсуждают, но, по слухам, 26-летняя девушка решила уйти из жизни, так как ее родители были против ее брака с любимым человеком.

Сама корпорация Samsung пользуется неоднозначной репутацией в своей стране. Да, теперь это технологии, качество, престиж и большие зарплаты, но именно Samsung известна за то, что в ней долгое время подавляли создание любых профсоюзов, а людей, как сказал один из знакомых корейцев, "выжимали как лимон, а потом выбрасывали как одноразовые стаканчики, так как желающих занять это место всегда хоть отбавляй".

Многие также отметят, что Samsung жесток и беспощаден к тем, кто попытается проникнуть и раскрыть внутренние тайны компании: отважившиеся на разоблачения СМИ лишают рекламы и прочей поддержки, госслужащих, политиков и прокуроров – подкупают. При этом сам внутренний мир этого конгломерата всегда остается закрытым.

В Корею широко известно выражение "Республика Samsung", которое означает силу, влияние этого конгло-

мерата, а также его статус государства в государстве.

В Южной Корею по разным обвинениям получили тюремные сроки руководители всех крупнейших концернов. Всех, исключая одного – Samsung. Ли Гон Хи в итоге после очередной волны кризиса и разоблачений, на которые решился один из ключевых юристов фирмы, смог уйти с условным сроком и обещанием отказаться от всех постов, чтобы в 2010 году снова вернуться к управлению "республикой Samsung". До сих пор идет процесс вокруг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возможных махинаций де-факто нынешнего руководителя конгломерата Ли Чжэ Ёна. Тот тоже получил было пять лет тюрьмы, что в итоге заменили на условный срок.

Трудно сказать, что тут влияет – действительная нехватка улик либо, как это постоянно указывают в СМИ и эксперты, "огромная значимость концерна для экономики страны, что сложно игнорировать в том числе и судьям". Более пятой части ВВП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генерируется "империей Samsung", кредитный рейтинг конгломерата чаще всего выше, чем у всей страны в целом. Вот и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в Южной Корею проще посадить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в тюрьму, чем президента Samsung.

Кроме того, при всех разговорах про инновации, новое управление Ли Гон Хи не трогал главного принципа, за который критикует корейские конгломераты иностранные эксперты. Samsung был и по-прежнему остается "семейным бизнесом", что отрицательно влияет на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ь.

Фразу Ли Гон Хи, сказанную в 1993 году во Франкфурте, стоит дополнить: "Смените все – кроме жены, детей и меня". Пару лет назад Ли Чжэ Ён, следуя стопам отца, заявил о новой волне крупных реформ, пообещав, что Samsung прекращает свое существование как единый конгломерат, разделяясь на полностью независимые отдельные компании. Прошло время, но "империя Samsung" по-прежнему существует, и у нее теперь новый наследник - Ли Чжэ Ён, который получил "трон" по семейному принципу.

Если говорить об инновациях Samsung, то стоит пообщаться об этом с тысячами зарубежных инженеров, техников и ученых, трудящихся в конструкторских бюро и институтах концерна, которые в подавляющем большинстве случаев являются настоящими авторами тех разработок, выдаваемых затем как "исключительно корейские". Впрочем, они работают на корейскую компанию, что невозможно отрицать.

"С величайшей скорбью..."

Да, имя Ли Гон Хи сопровождали как крупные достижения, впечатляющие цифры продаж, бесчисленное количеств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патентов, но и громкие скандалы, обвинения в жестоком отношении к людям ради делового успеха, были и разоблачения по части морального облика.

Но Ли был и оставался человеком своей эпохи. Ни один из "отцов-основателей" экономики Южной Кореи не может похвастаться безупречным и полностью свободным от критики имиджем и биографией, а заслуги Ли Гон Хи невозможно отрицать. Он, повторимся, вывел конгломерат Samsung с его главным "бриллиантом" в лице Samsung Electronics из лиги "крупных, но 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в "высший дивизион" до уровня подлинно международной фирмы с новаторским имиджем и одним из самых авторитетных и почитаемых брендов на планете.

В заявлении, сделанном от имени Samsung 25 октября по поводу смерти председателя, говорится следующее: "С величайшей скорбью мы заявляем, что ушел из жизни Ли Гон Хи,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мпании Samsung Electronics. Председатель Ли умер 25 октября. ... Все мы, сотрудники Samsung, будем хранить в памяти и благодарны за тот путь, который мы прошли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Ли... Его наследие будет длиться всегда..."

Ли Гон Хи изменил не только один, пусть даже и самый большой, конгломерат страны, он во многом изменил и самую Южную Корею, а потому действительно, его наследие навсегда останется с корейцам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Справка "РГ"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Службы финансового контроля, на момент смерти общее имущество Ли Гон Хи составило 18 триллионов 225, 1 миллиарда вон или более 16 млрд. долларов. Основная часть имущества приходится на акции различных компаний конгломерата Samsung. Ли был самым богатым человеком Южной Кореи. Правда наследникам придется уплатить немалый налог. Согласн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м подсчетам, из 18 триллионов вон в качестве налогов должны быть уплачены более 10 триллионов вон или более 55 процент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недряют Национальную социальную инициативу

Проект призван устранить барьеры при оказании услуг в сферах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медицины, образования. Первые итоги этой работы обсудили на встрече в Москв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гентства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Светлана Чупшев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тала одним из пилотных регионов, где с этого года началась апробация механизмов Национальной социальной инициативы (НС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риступили к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работе по выявлению барьеров в 10 жизненных ситуациях.

– Мы хотим, чтобы родители легко могли организов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для детей, пенсионеры быстро получали социальные услуги, а люди, ищущие работу, находили помощь в центрах занятости. Также в качестве приоритетных выбраны такие направления, как амбулаторная помощь пациентам с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ы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и получение технических средств реабилитации для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иями двигательной функции, – рас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ветлана Чупшева отметила, что задача Национальной социальной инициативы – изменить на региональном уровне процессы в систем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в бюджетной сфере.

– Необходимо, чтобы они работали для человека, вокруг его нужд и для удовлетворения его потребностей. Для этого будут изучаться запросы людей в разных жизненных ситуациях, а также барьеры, возникающие при получе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 – сказала глава Агентства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Например, чтобы улучшить организацию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была проведена онлайн-сессия по опыту работы Великого Новгорода, опрос экспертов и родителей. Среди путей решения предлагается внедрить навигатор дообразования, куда войдут как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так и част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Также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менять практику «История успеха», направленную на раннюю профориентацию, наставничество, погружение в будущую профессию.

Национальная социальная инициатива позволит добиться улучшений и в сфер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олучение амбулаторной помощи для пациентов с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ы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 от момента обращения с жалобой до отработанной явки после обследования и коррекции лечения – планируется сократить на 20 дней.

Специалисты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встретились на дому с сахалинцами, которым необходимы технические средства реабилитации. Также были проведены опросы фокус-групп по проработке эт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Корсакове.

На следующем этапе запланировано рассмотреть выявленные проблемы в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е, разработать план действий по их решению и внедрению новых инициатив. Пилотная апробация НСИ продлится до конца года. Такая работа позволит сформировать рейтинг регион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качеству жизни.

На Сахалине готовят сестер милосерди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медицинском колледже приступили к особому курсу подготовки младших медицинских сестер. Наряду с базовыми медицинскими знаниями слушатели познакомятся с основами духов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реди 18 слушателей нового курса нет случайных людей. Замысел о проведении подготовки, объединяющей медицину и духовность, возник из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православной церковью. Подобные курсы проводятся в учебном центре Центральной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ы Святителя Алексия Митрополита Московского. Большинство студентов – прихожане, помогающие в уходе за тяжелобольными, нуждающимися в паллиативной помощи. К студентам сахалинского медколледжа обратился Епископ Орехово-Зуевский Пантелеимон, специально прибывший на открытие курсов.

– Дела любви и милосердия должны соединяться с внутренним желанием, основа милосердия – понимание, что мы созданы Богом для того, чтобы жить для других, чтобы научиться любить других людей. Эти знания являются духовной основой милосердия, – рассказал епископ.

Набор слушателей не ограничивался возрастными рамками. За парты сели студенты в возрасте от 24 до 72 лет. Некоторые из них занимаются социальной работой в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кто-то это делает бескорыстно, предлагая поддержку обездоленным людям.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курсов выпускники смогут оказывать помощь боле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 с учетом полученных медицинских знаний.

Теоретические и практические занятия студентам проводят преподаватели колледжа. Блок духовных знаний дают преподаватели учебного центра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ы Святителя Алексия.

– Курс рассчитан на 140 часов. Кроме изучения теории с практикой в колледже студенты побывают в онкологическом диспансере, областной больнице, смогут воочию соприкоснуться с работой в практическ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и. Полученные медицинские навыки пригодятся не только в осуществлении благих намерений, помощи близким, но и дадут возможность трудоустроиться в лечебное учреждение, – отметил директор медиц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Алексей Швец.

Работа по обучению сестер милосердия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в рамках соглашения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между медицинским колледжем и центральной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ей Святителя Алексия. Документ подписан во время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 церковному социальному служению, состоявшей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сетить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можно по программе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ешбэка

Часть средств за покупку тура или проживание в гостинице будут возвращены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ам по России.

Первый этап программы продлился всего неделю – с 21 по 28 августа, и многие туристы не успели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возможностью сэкономить на отдыхе. На втором этапе приобрести тур с кешбэком можно до 5 декабря 2020 года, а осуществить поездку – до 10 января 2021-го. Максимальная сумма возврата составляет 20 тысяч рублей. В программе участвуют поездки от двух ночей, что позволяет отправиться в короткие путешествия на выходные.

– Наша компания участвовала в первом этапе кешбэка и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одключилась ко второму. Мы увидели, что больше туристов стали интересоваться поездками на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Мы предлагаем различные варианты осенних и зимних видов отдыха с посещением природных объектов, катанием на снегоходах, рыбалкой и еще много интересного, – рассказала менеджер по туризму компании «Амист» Татьяна Саутченкова.

Сергей Рак из Нового Уренгоя узнал о программе кешбэка от родственников. Зашел на сайт, выбрал тур и уже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отдыхает на Сахалине, а затем отправится на Курилы.

– Программа насыщенная и интересная. Сахалин – удивительное место. Про красоту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природы слышан давно, но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города также произвела хорошее впечатление. Вдвойне приятно, что удалось вернуть часть суммы. Эти деньги можно потратить, к примеру, на подарки близким, – рассказал путешественник.

Чтобы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условиями программы и вернуть часть средств за отдых необходимо на сайте мирпутешествий.рф ввести название региона, выбрать понравившийся тур и оплатить покупку картой «Мир». Кешбэк в размере до 20 процентов будет начислен автоматически в течение пяти дней.

Так, при покупке недельного тура на Сахалин за 58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человека, в который входит трансфер из аэропорта, питание по программе, проживание в гостинице, страховка, посещение природных объектов, можно будет вернуть 11600 рублей.

Островные туроператоры предлагают массу вариантов отдыха с возможностью кешбэка на осень и зиму. К примеру, тур для настоящих мужчин, рассчитанный на 9 дней, насыщен морской и речной рыбалкой,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ми удовольствиями, посещением популярных природных объектов – мыса Евстафия, бирюзовых озер, хребта Жданко, мысов Великан и Птичий. Совмещенный тур Сахалин-Итуруп окунет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ов в мир сразу двух уникальных островов. Есть интерес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для любителей тайн и загадок, а также зимние туры для экстремалов с катанием на снегоходах, полетами в аэротрубе, походами на снегоступах и подледной рыбалкой.

Также в ноябре на острове стартует акция «Твоя яркая зима на Сахалине», которая позволит получить ее участникам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бонусы и скидки на отдых, товары и услуги.

Отметим, программу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ешбэка, которая направлена на расширение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доступного отдыха внутри страны, реализует Ростуризм. Всего на стимулирование внутренних турпоездок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было выделено 15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звали организацию высокой социальной эффективности

Победителей награди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лексей Белик 27 октября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трехсторонней комиссии по регулированию социально-трудовых отношений.

Первое место в номинации «За сокращени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травматизма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в организациях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сферы» завоевал совхоз «Тепличный». Победу сред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одержал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для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Преодоление». Охинская ТЭЦ завоевала первое место «За развитие кадрового потенциала в организациях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сферы». Эта же организация стала победителем в номинации «За формирование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работников в организациях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сферы». А в не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сфере первенство за Кировским психоневрологическим интернатом.

–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остров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в конкурсе – показатель того, что социальное партнерство, внедрение лучшего опыта работы с персоналом становится в нашем регионе повседневной и повсеместной практикой, – сказал Алексей Белик. – Важно, что в итоге улучшаются условия труда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растет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наших земляков.

Конкурс «Россий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высокой социальной эффективности» проводится в нашей стране с 2000 года. Участники получ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достижения в работе с персоналом, улучшении условий и охраны труда, развитии социальн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формировании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частникам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этапа стали

11 организаций.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комиссии состоялось награждение участников еще одного конкурса – «Лучший по профессии», который учрежден Министерством труда и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РФ. В этом году из-за противоэпидемических ограничений региональный этап проводился только по одной номинации – «Лучший разработчик Web и мультимедийных приложений».

Первое место завоев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й патронажной службы «Родные люди» Павел Синютин.

– Я недавно получил специальность, и многие знания у меня еще свежи в памяти. Поэтому за короткий отрезок времени я выполнил большой объем работ, чем другие участники, – поделился победитель.

Второе место досталось специалисту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Сергею Верминскому. На третьем – еще один сотрудник центра Илья Белоголов.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дупреждают об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фейков в условиях пандемии

За публикацию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и онлайн-мессенджерах заведомо лож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б обстоятельствах, представляющих угрозу для жизни и здоровья, гражданину грозит штраф от 300 тысяч до 700 тысяч рублей.

Суд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же выносили подобные решения. Напомним, в апреле этого года сахалин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овело спецоперацию по возвращению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из Таиланда. На борту самолета находились 90 человек. Всем пассажирам предоставили по два комплекта защитной одежды, которую используют в инфекционных больницах. Люди переодевали костюмы во время пересадки в Шанхае. Оставались в них и по прибытии на остров. Спецодежду разрешили снять лишь после ее дезинфекции.

Один из прилетевших на остров распространил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ролик. В нем он озвучил н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утверждение о бездействии властей и о необеспечении пассажиров воздушного судна средствами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защиты.

Против сахалинца возбудили уголовное дело. В мае 2020 г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городской суд признал жителя области виновным в совершении преступления, предусмотренного статьей 207.1 УК РФ (публично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заведомо лож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 принимаемых мерах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и территорий, приемах и способах защиты от обстоятельств, представляющих угрозу жизни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граждан). Мужчине было назначено наказание в виде штрафа – 300 тысяч рублей.

Сейчас в сетях встреча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подобного характера. Без подтверждения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ее размещают активные жители. Данные действия также квалифицируются как нарушени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По сообщениям, которые несут заведомо ложный характер, проводится юридическая проверк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сокоскоростным интернетом обеспечили еще 43 учреждения

В рамках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национ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Циф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РФ» завершена прокладка волоконно-оптических линий связи. Высокоскоростным интернетом обеспечены все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области, а также пожарные части и посты, в том числе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Скорость интернета составляет в городах – не менее 100 Мб/с, в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 не менее 50 Мб/с. Исключение – средняя школа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а, но и там вопрос решат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 Мы знаем, что школьные электронные дневники и журналы прочно вошли в нашу жизнь.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о бесперебойное соединение высокой скорости. Кроме того, наша область находится в удалении от центра России, а ведущие педагогические кадры сосредоточены именно там. Не каждый островной учитель может часто и подолгу выезжать на курсы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за пределы области, а непрерыв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сегодня крайне необходимо,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региона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Во втором лиц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авно мечтали о высоком качестве связи. Сегодня в учебном заведении перебоев с интернетом нет.

– Для обучения в дистанционном режиме, к которому приходится прибегать в условиях пандемии, нужна высокая скорость. К тому же и педагоги, и ученики всегда могут найти во всемирной сети информацию очень быстро. А учителям теперь нет необходимости носить с собой кипу бумаг, журналов и дневников – всё есть в электронном формате, – рассказала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учебного заведения Татьяна Кошечко.

Региональный проект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стартовал в 2019 году. Впервые волоконно-оптические линии связи появились в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 Головинно, Дубовое, Менделеево на Кунашире, Горячие Ключи и Горное на Итурупе. Как отметила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министерства цифрового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ксана Мараховская, до конца 2021 года к высокоскоростному интернету будут подключены еще 54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объекта в регионе.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KBS '한민족상', 사할린동포 박승의 교수, 공노원 부회장 수상

제22회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 '한민족상'과 5개 분야 수상자가 발표되었다. 한글날인 10월 9일 오전 7시 KBS 한민족방송(AM 97.2, 1170KHz/라디오전용 애플리케이션 Kong)을 통해 북방 동포사회에 방송되었다. 이번에 신설되어 많은 관심을 받은 '한민족상'은 전 사할린국립대학교 박승의 교수와 사할린한국어교원협회(한국) 공노원 부회장이 공동 수상했다. 박교수는 수기 <가라후토로 팔려간 이쁜 고모>, 공부회장은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국어 교육의 리더'로서의 공적이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5개 분야 체험 및 공적상은 청소년부문에 대상에 응정 김윤주의 <색 바래져 가는 우리 언어>, 성인 부문 대상에 안도현 리련옥 <내 생애에 제일 잘한 세 가지 일>, 영상/오디오콘텐츠 부문에 영등포구 전길운씨와 연길시 박미령씨가 각각 선정되었다. 또한 지도교원상에 조선족중학교 신영애 교사와 제4소학교 유춘란 교사가 선정되었고, 단체상에는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 조선족중학교가 선정되었다.

KBS 한민족방송이 주최하는 이 상은 북방동포의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물론, 타민족과 더불어 살아가며 문화와 전통을 전승하고 우리말과 글을 보존하는 이들을 격려, 포상하는 시상제도다. 금년이 21회로 지난 1998년부터 실시해 왔다. 특히 금년은 한류수교 30년 기념으로 러시아 고려인 및 사할린 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민족상'을 신설하였다.



'한민족상' 첫 수상자인 박승의 교수는 사할린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에 영주귀국하여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다. 수상작인 <가라후토로 팔려간 이쁜 고모>는 일제 강제동원과 사할린 이주와 역류, 그리고 미귀환 되면서 사할린에서 3대가 뿌리를 내린 가족사를 그렸다.

공동 수상자인 공노원 사할린한국어교육협회 부회장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영주귀국하였다. 수상 공적은 영주귀국한 사할린 한국어 교육의 리더 활동상이다. 제출한 동영상에 의하면 한국 이름과 무국적으로 살다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기 위해 현재 한국에서도 고려인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글을 가르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하얼빈 등에서 갖던 시상식은 KBS 방송국 무대에서 한민족방송 대표 프로그램인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의 20년 장수MC인 방송인 이소연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무산되었다.

올해에는 200여 편이 응모되었다. 지난해에는 중국 동포사회에서만 300여 편이 응모되었는데, 22주년을 맞은 올해는 동포 2세, 4세들이 다수 참여했고 국내



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참여가 작년보다 줄었다. 그러나 올해는 러시아 동포들이 처음으로 참여하였는데, 하바롭스크한국교육원과 사할린한국어교육협회 관계 동포들이 참여했다는 것이 큰 의의가 있다.

한편 수상소식을 전해들은 박승의 교수는 "우리는 조선학교가 없어지면서 25년동안 한국어를 잊어버렸다. 그러나 88서울올림픽 이후 다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게 되었다. 모국어를 지켜야 사할린 한인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고 본다. 올해는 제3회 사할린한인문학상송회가 코로나로 진행되지 못해서 아쉬웠다. 사할린 한인문학이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공노원 부회장은 "조국에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무국적으로 살다가 가신 아버지의 유산을 받들어서 사할린한국어교육협회를 26년동안 계속 운영해오고 있다. 아버지는 70년간 국적이 조선→일본→무국적→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소련→러시아→남한(한국)으로 최다 7차례나 바꾸어야 하는 고난과 역경의 세월 속에서도 집에서는 러시아말 대신 우리말만 쓰게 했다."라고 회상했다.

(기미양/국약신문 객원기자)

"우리가 콘텐츠다" 한인언론 연대의 힘 드러낸 '국제 심포지엄'

제19회 국제심포지엄, 토론회-영상-현지연결 3원 방식으로 진행 어디서도 접할 수 없는 생생한 소식, 세언협 콘텐츠 위력 드러내 20개국 15개 도시 한인 언론인 참여, 역대 최고의 참여율 기록

(서울)세계한인언론인협회 공동취재단 = 21일(수) 개막한 제19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는 22일(목) 제10회 세계한인언론인 국제 심포지엄으로 이어졌다.



국제심포지엄은 코로나 19 여파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열렸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현장 참석자는 30명 미만으로 한정했다.

올해 국제심포지엄은 코로나 19 여파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열렸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현장 참석자는 30명 미만으로 한정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30여개국 50여 명의 재외한인 언론인들은 온라인 컨퍼런스 프로그램인 줌(ZOOM)과 동영상 스트리밍 유튜브(youtube)를 이용해 웨비나(webinar) 방식으로 국제심포지엄에 참여했다.

"포스트 코로나19, 재외동포 언론의 역할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제10회 세계한인언론인 국제심포지엄은 현장패널 3명과 전 세계 한인 언론인들이 사전에 보내준 녹화영상, 심포지엄 현장에서 현지 회원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3원 방식으로 진행했다. 송태진 케냐 GBS-TV 제작팀장이 심포지엄 사회를 맡았고, 최윤주 미국 텍사스 한국일보 발행인과 표영태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편집국장, 조윤경 독일 교포신문 발행인이 현장 패널로 참석했다. 20개국 15개 도시의 한인 언론인들이 주제별 영상 인터뷰로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의 회원사 참여기록을 세웠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국가간 이동의 어려움 때문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전용창 회장은 "각국에서 회원사들이 전해온 영상은 국내에서는 전혀 접할 수 없는 생생한 현장 기록이고, 우리가 함께 논의할 주제는 재외동포언론 미래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밝혀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역사상 최초로 치러지는 하이브리드 방식 대회에 기대감을 표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19, 재외동포 언론의 역할과 정책과제"의 큰 주제 속에서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현지 분위기와 현재상황 △코로나 19를 겪은 전 세계 한인사회 동향 △코로나19에 따른 한인언론의 지각변동 △재외동포 언론지원의 필요성을 다루며 재외한인언론의 현주소와 역할을 짚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대로 삼았다. 제10회 세계한인언론인 국제심포지엄 현장은 각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종합적으로 보고되는 상황실을 방불케 했다. 지구촌에서 가장 먼저 바이러스 공습을 받은 중국을 위시해 캄보디아·태국·홍콩 등 아

시아 지역에서의 코로나19 상황을 집중적으로 다뤘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는 미국 플로리다·프랑스 파리·러시아 모스크바·아르헨티나·키르기스스탄·아프리카 케냐·인도네시아 등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가 쏟아졌다. 현장 패널로 참석한 캐나다 중앙일보 표영태 편집국장은 "온라인을 통해 많은 회원들이 참여함으로써 하나의 주제 하에 다양한 상황과 의견을 곁들여볼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플랫폼과 취재 노하우를 교환하는 자리였음을 상기했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지 한인사회가 힘을 합쳐 한인사회를 살려내고, 단합의 힘으로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는가 하면, 주류사회와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한인사회 위상을 강화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삼아 코로나19를 극복한 사례들이 발표되면서, 기존 언론에서는 접할 수 없는 세계한인언론인협회만의 콘텐츠 경쟁력을 확인했다. 현장 패널로 참석한 텍사스 한국일보 최윤주 발행인은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가 곧 '콘텐츠'임을 대내외에 입증했다. 세계한인언론의 공고한 연대가 '저력'이 되고, 함께 만들어낸 콘텐츠가 '위력'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실히 알린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재외한인언론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과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종이신문의 한계와 뉴스 플랫폼의 변화를 심도있게 다룬 토론에서 독일교포신문 조윤경 대표는 "매체의 다변화 뿐만 아니라 신문 콘텐츠의 다변화 또한 중요하다"며 "재외언론은 단순한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한인 사회의 구성원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와 지식, 그리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그 중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19가 뉴스전달 방식의 온라인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재외한인 언론이 나아갈 방향을 직접 선도적으로 보여줘 뉴스 플랫폼 변화에 실제적인 사례가 됐다는 평가가 모아지고 있다.

최윤주·배영훈 기자

(출처: 세계한인언론인협회)

모스크바서 '전 러시아 한국어올림피아드' 열려

전 러시아 한국어교수협의회 주최, 러시아고등경제대 한국학과 주관 러시아 각지 대표하는 학생 20여명 참가 러-한·한-러 번역, 작문, 말하기 등 겨뤄

전 러시아 한국어교수협의회가 주최하는 '전 러시아 한국어 올림피아드'가 지난 10월 21~22일 이틀간 러시아 모스크바 소재 러시아고등경제대학교에서 열렸다.

이 대회는 2010년부터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며 현지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한국어경시대회로 자리 잡고 있다.

6회째를 맞은 올해 대회는 러시아고등경제대학교 한국학과 주관, 한국국제교류재단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 우랄, 이르쿠츠크, 카잔, 부랴트, 블라디보스톡 등 러시아 각 지역 대학을 대표하는 학생 20여명이 참가해 한국어 실력을 겨뤘다.

개회식에는 안드레이 카르네예프 고등경제대 동양학부 학장, 김 나탈리아 러시아고등경제대 한국학과장, 임철우 한국국제교류재단 모스크바사무소장, 김원일 전 민주평통 모스크바 협의회장 등이 참석했고, 이석배 주러시아한국대사는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 대회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러시아의 코로나 방역수칙을 엄수한 가운데, 러-한 번역, 한-러 번역, 한국어 작문, 한국어 말하기 등 4개 분야별로 진행됐다.



전 러시아 한국어교수협의회가 주최하는 '전(全) 러시아 한국어 올림피아드'가 지난 10월 21~22일 이틀간 러시아 모스크바 소재 러시아고등경제대학교에서 열렸다. 개회식 참석자들 (사진 모스크바프레스)

1등상은 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교 3학년생인 엘리자베드 루키야노바 씨가, 2등상은 러시아국립아카데미 인문대에 재학 중인 다리아 시디니코바 씨가, 3등상은 러시아국립언어대에 재학 중인 마리아 페테르텐코 씨가 수상했다.

1등상을 받은 루키야노바 씨는 대학원 진학 시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지원하는 전학년 장학금을 받게 되며, 2,3등 수상자에게 부상으로 상품권이, 그리고 참가자 전원에게 선물이 주어졌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함박 고려인마을에 이종언어말하기대회가 열린다"

574돌 한글날 기념 제1회 너머인천고려인문화원 이종언어 말하기대회가 2020년 10월 8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인천고려인문화원(인천시 연수구 함박로 27, 2층)에서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날 학부모 참석도 배제하고 결승진출자들과 심사위원들과 문화원 진행자들만이 모여 조출하였으나 결승에 진출한 참가자들의 열기로 고려인문화원은 후끈 달았다.

한글날을 맞아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의욕 고취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한국어로 발표하는 능력 향상의 기회 제공하기 위해 계획하였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꿈, 미래, 진로 등 자유주제로 하였다. 평가와 심사 기준은 내용, 표현력, 문법적 정확성이었다. 원고를 보면서 하는 참가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참가자는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원고를 모두 외워 이 대회의 명칭이 말하기대회를 잘 보여주었다. 초등부(1등 한 알렉세이), 중등부(1등 콘드라텐코 아나톨리), 성인부(1등 마 안나)가 수상하였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김국환), 독립운동가 최

재형기념사업회 공동대표인 인천 기업인(채양목), 전 러시아어문학과 교수(정막래), 함박마을공동체 회장(이용환),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유혜경) 등 다양한 심사위원들 가운데 심사위원장을 맡은 유혜경 교육감이 "오늘 참가자들이 우리말을 이렇게 정확한 발음으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동입니다. 오늘 모두에게 1등을 주고 싶습니다"라는 심사평을 했을 정도로 이 날의 연설들은 알찼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심사점수가 집계되는 동안 인천고려인문화원 시니어 댄스 동아리 '소녀시대'의 춤과 참여자들이 장기자랑을 펼쳐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지루함을 덜어주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박봉수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도 이종언어말하기대회를 통해 희망으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이번에는 코로나로 대부분의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지만 다음에는 가족 모두 참여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너머인천고려인문화원 제공)

25.октября 2020 года в 10 часов утра скорпостижно ушла из жизни Ирина Ивановна Хе Ген Дя (허경자), активный участник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член правления ЮСМООК, бывший председатель Анив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РООСК. Она отличалась неравнодушием к чужим бедам и проблемам. Являясь помощником депутата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многим помогла решить бытовые проблемы. Опекала наших бабушек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и заслужила их уважение. Мы искренне соболезнуем родным и близким Ирины Ивановны 허경자. Мы будем помнить ее. Мест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цев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최근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에서 적극적으로 활약하신 허경자 씨가 72 세를 일기로 뜻밖에 사망하였음을 부고하며 비애에 잠긴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고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아니와 한인회 전 회장 허경자 씨가 2020년 10월 25일 72세를 일기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셨음을 부고하며 비애에 젖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사할린주한인협회
사할린주노인회
사할린주이산가족협회

아니와한인회 전 회장이며 최근에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에서 열심히 활동한 허경자 씨의 불의의 사망과 관련하여 비애에 잠긴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노인회 일동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신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КИНО

ТЕАТР

КОНЦЕРТЫ

SAKH.COM • БИЛЕТЫ

Ваш портал в мир развлечений!

Вы можете купить билеты

на сайте bilet.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билет.sakh.com](http://bilet.sakh.com)

Загрузите в Google play

Загрузите в App Store

Реклама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